



상악 전치부에서의 single immediate implant restoration

도항주* | 보스톤 치과

본 증례는 외상으로 인해 상실된 상악 중절치를 즉시 임플란트로 수복하여 심미와 기능을 회복 시킨 증례이다.

즉시 식립을 위해서는 잔존 골의 형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교합 패턴과 치조골의 염종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. 이 중에서도 심미적인 상악 전치부의 즉시 임플란트 성공을 위해서는 발치 이전에 환자의 순측 골량과 골의 형태, 치은의 biotype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예후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.

하나의 상악 전치를 즉시 임플란트로 수복할 때는 통상적인 전치부 단일 치아 수복시 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더 많이 내재되어 있어 인접 전치와의 조화로운 수복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프로토콜이 요구된다.

이러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발치

후 무치악 시간이 늘어날수록 치조골의 흡수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시 폭경 감소와 주위 연조직의 변화에 의해 심미적인 보철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악 전치부의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물 장착은 골조직과 연조직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용이하게 심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최근의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의 발달과 디자인의 발전으로 골유착 시간이 줄어 적절한 증례를 선별하여 정확히 임상 술식을 따른다면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 보철물로 수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.

본 증례에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후 바로 임시 보철물로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여 6개월 뒤 임시 보철물에 의해 형성된 치은을 가능한 한 그대로 재현하여 최종 수복물을 제작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